

사순 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 * 타종시 모두 일어섭니다.
- * 사제가 제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두 앉습니다.

개회예식

- †대연도 성가 90장/107쪽 다 함 께
- †정심기도 (생략)
- †죄의고백 (생략)
- †기리에 8쪽(A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살아계신 하느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계명을 새겨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살아 있는 하느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1독서 출애 20:1-17 말 은 이
성 시 시편 19편 다 함 께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돌리주고
○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워쳐준다.
-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워침 받고
○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니와,
-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주소서.
- 내 바위요, 내 구원자이신 주-이여,
○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하소서.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 2독서 1고린 1:18-25 말 은 이
- †복음환호송 말 은 이
- †복음서 요한 2:13-22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생략)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 †봉헌성가 389장 다 함 께
 -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 거룩하시다 25쪽(A곡) 다 함 께
 -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 하느님의 어린양 ... 30쪽(A곡) 다 함 께
 - 성체성가 363장 다 함 께
 - †영성체후기도 77쪽 다 함 께
-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써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자회장

파송예식

- †축복기도 32쪽 집 전 자
- †파송성가 409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3월 3일)	다음 주일(3월 10일)
1독서	윤희진	최서은
2독서	유정훈	최자연
대 도	-	-
다음주일 전례독서	민수 21:4-9 시편 107 에페 2:1-10 요한 3:14-21	
성 가	대연도 90 514 448 597	
복 사	최하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1조> 백남진 박선희 신동홍 홍종분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3월 3일 사순 3주일 · 나해 · 자색

제28-9호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대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은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예수께서 허물라고 하신 성전과 다시 세우겠노라 하신 성전은 전혀 다릅니다. 벽돌과 황금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였습니다. 예수께서 회복하시려던 '아버지의 집'은 물리적인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모셔야 할 '몸'에 돈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 살과 피와 육체와 심령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화'(淨化)코자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정화는 곧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순의 길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건을 봅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고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 있는 어떤 교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배와 음악, 정치와 사회, 민족의 경축과 탄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둘러엮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은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보이십니까? 저 채찍의 허공을 가르며 분노!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외침소리!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신앙인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서울교구는 오는 4월 13일(토) 특별 교구 의회를 개최하여, 성공회와 서울교구의 선교와 사목을 관장하고 이끌어갈 교구장 주교를 선출합니다. 서울교구장 이경호 주교님께서 지난 대림절부터 120일 기도 운동을 선포하시고, 성공회의 미래를 위한 기도와 식별 운동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인 시대에 새로운 주교의 선출은 신앙의 기준과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교는 누구인가?

서울교구는 곧 교구 의회를 열어 새 주교를 선출한다. 서울교구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바른 주교 식별과 선출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다. 때가 가까워지면서 복잡한 논의와 민망한 논쟁도 적잖다. 바른 지도자를 뽑겠다는 신앙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참에 주교제를 없애면 안 되느냐?' '임기만 짧으면 된다'는 차가운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한다. '주교는 누구인가?' 그 대답을 복음과 교회의 선교 전통 안에서 찾고 있는가? 이 물음과 대답이 없다면 후회를 되풀이한다고 역사는 말한다. 다시, 주교는 누구인가? 우리 기대와 판단 기준은 교회 전통에 근거가 있는가?

주교직은 교회 선교의 필요에 따라 마련된 역사의 산물이다. 성공회는 초대교회 신앙과 삶에 새겨진 주교상을 온전히 담으려 했다. 복음의 전파와 교회 선교의 방편으로 주교제를 택했다. 그래서 주교제는 그리스도교의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 성공회 전통에는 필수 요소이다. 주교제를 포기하면 적어도 성공회는 아니다. 여기에 이견을 달 수 없다. 문제는 주교직을 바로 이해하고 세우는 일이다.

초대교회와 성공회 전통은 **주교를 신앙의 교사, 공동체의 사목자, 복음의 진리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로 가르친다.

교사로서 주교는 생각과 신념이 어지러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득하는 사람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태롭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경험을 분석하여 신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신앙의 행동으로 이끈다. 주교는 현장의 신학 교사이다.

사목자로서 주교는 '교구'라는 한 교회를 신앙의 기준과 전례의 행동으로 아우르고 돌보는 사람이다. '교구'라는 한 교회의 책임 사목자인 주교는 자신의 대리자인 사제를 지역교회에 파송하여 주교의 권위로 신자를 보살핀다. 다양한 지역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일치는 전례 안에서 확인하고 쇄신한다. 이것이 선교를 위한 권위와 위계질서의 본질이다.

순교자로서 주교는 복음 전파와 선교에 삶을 바치는 사람이다. 여기서 권위가 선다. 선교(마티리아)라는 말은 '복음 증언'의 다른 말이었다. 순교자는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신앙을 세우고 이를 공동체가 누리며 증언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 밖의 일은 순교의 의지를 꺾는 온갖 유혹일 뿐이다.

주교는 교사와 사목자와 순교자로서 일만 하면 된다. 신자들은 주교에게 다른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지위로 생겨난 여러 다른 일에 귀와 눈을 파는 주교나, 주교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다 맡기면서 그 업무 수행을 비판하는 신자나 모두 주교직을 위협에 빠뜨린다. 주교에게 최고경영자(CEO)를 기대하면, 주교도 망치고 교회도 망친다.

본연을 되찾아 거듭 물어야 올바른 주교 식별이 가능하다. 이제 주교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성공회 신문> 2016년 10월 30일 치 - 특별 초청 기고

이번 주간 외울 말씀 19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시편 16편 8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사순절기 전례 안내

사순절기 동안 입당성가 대신 대연도로 성찬례를 시작하며, 죄의 고백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는 생략합니다. (미사곡: A곡, 전례색: 자색)

◆ 입학 & 졸업 축하

오늘(3일) 성찬례 광고 시간에 졸업과 입학을 한 어린이, 학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알림

◆ 3월 교회위원회

오늘(3월 3일) 오후 1시 40분 / 어린이 예배실

◆ 전교우 옷놀이 (척사대회)

다음 주일(3월 10일) 11시 성찬례 후. 사감을 위한 잔치에 모든 교우의 참여를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과 경품이 마련됩니다.

◆ 전교우 성서공부

오늘(3월 3일) 오후 1시에 성서공부가 있습니다.

◆ 수요 성서공부

3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금요 기도 모임

3월 8일(금) 오후 7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 청년회 모임, 학생회 모임

3월 24일(주) 11시 성찬례 후에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어머니연합수련회

3월 14일(목) 오전 11시 / 수원교회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위원회

3월 24일(주) 오후 3시 / 수원교회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권용준(3일) 최서은(5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2,470,000원
권순호/황선숙 김동준/이선자 김은하 김준우/조장은 이상헌/최미혜 이은가 이은경 정국진/이숙영 정연창/박순호 조준행신부 최용준신부/백기은 허훈제

■ **주일헌금** 182,000원
권순호 류한신 박종례 백수빈 백옥경 유근상 이동우 이서현 이원주 이은경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최순덕 최용옥 한명숙 황선숙

■ **주일학교** 유아윤 유아현 2,000원

■ **감사헌금** 299,000원
권용준(졸업) 김도환 유정훈/김승현 장재현, 장태현(책가방감사) 차준섭신부/김승숙 사순절 헌금: 고미순, 박선희, 박순호, 박종례 백옥경, 이선자, 황선숙, 조준행신부, 무명

■ **특별헌금** 150,000원
백옥경(나눔의집) 아론기금: 권순호 이윤식 최용옥 황선숙

◆ 주간전례독서 (3월 4일~9일 / 사순 3주간)

	독서	복음
4일(월)	열왕하 5:1-15	루가 4:24-30
5일(화)	다니 2:20-23	마태 18:21-35
6일(수)	신명 4:1, 5-9	마태 5:17-19
7일(목)	예레 7:23-28	루가 11:14-23
8일(금)	호세 14:2-10	마르 12:28-34
9일(토)	호세 5:15-6:6	루가 18:9-14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근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